

무더운 여름 박물관서 알차게 즐기자

국립광주박물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눈높이로 즐기는 문화재 체험부터
신안해저유물 가상현실 XR 감상 등 '다채'

국립광주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박물관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야외정원을 마주한다. 44년 동안 잘 가꿔진 초록빛 넓은 정원을 거닐며 붉은 백일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정자에 앉아서 시원하게 정원을 돌아볼 수 있다. 정원 곳곳에 있는 고인돌, 탑, 가마터 등 야외 전시물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다.

다양한 전시도 마련됐다. 광주박물관 브랜드 '아시아 도자문화'를 바탕으로 기획된 '아시아도자문화실'에서는 한국 명품 도자기를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도자기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아시아도자문화실 안의 '가상 현실 체험관

XR체험실'에서는 '700년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신안해저문화재를 게임형 체험으로 만나볼 수 있다.

'역사문화실'에서는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어떤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왔는지 감상할 수 있다. 광주·전남의 선사·고대 고고학 유물과 수준 높은 불교공예품, 조선시대 회화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여수, 그 시절의 바다' 특별전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여수에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의 오랜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름다운 바다를 낀 도시의 기억 속 남도 문화의 진수와 남만의 장소로 새롭게 빛나는 여수를 느끼고, 빛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도 눈길을



끌린다. 2천년 전 신창동 마을을 탐험하면서 선사인의 공동체 의식과 옛사람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도공이 돼 디지털로 도자기를 만들거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무역선인 신안선을 통해 국제교류 체험을 할 수 있다. 최근 개발·제작한 '도자기 교육상자'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다양한 교육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광주과학관은 방학마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를 주제로 한다. 박물관에서는 여수의 신석기시대 동물을 모티브로



한 여수 사과 리 교구로 여수 오토마타와 동물 빛 그림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도 펼쳐진다. 오는 27일 토요일 어린이를 위한 공연 '가족 뮤지컬: 인어공주'가 진행되며, 2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람 가능하다.

또 오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광복영화가 돌아왔썬(summer)!'이 운영된다. '소울', '베일리 어게인', '토이 스토리4',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양한 영화가 준비돼 있다. 당일 선착순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의 '박물관 숲 이야기' 활동 모습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 정원 속 아름다운 여름 꽃들을 만나볼 수 있는 숲 이야기 '여름날의 꿈'은 오는 13일 열린다. 백일홍만 핀다는 백일홍,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수국 등을 숲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만나본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백일홍이 핀 국립광주박물관 정경

김시종 시인, 제4회 ACC 아시아문학상 수상

'잃어버린 계절', '조선과 일본에 살다' 등 반향

제4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경계인의 삶'을 살아온 일본 문단의 거장 김시종(시인) 시인이 선정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학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경자)는 제일(在日) 시인 김시종을 제4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채희운 소설가를 위원장으로 방현석 소설가, 고병철 문학평론가, 정치사 소설가, 신정호 목포대 교수, 신유목 시인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학상 심사위원회는 "김시종 시인은 냉전의 분극 세계뿐만 아니라 국가주의와 국민주의에 구속되지 않고 이

것을 해방시킴으로써 그 어떠한 틈새와 경계로부터 구획되지 않는 시적 행위를 실천해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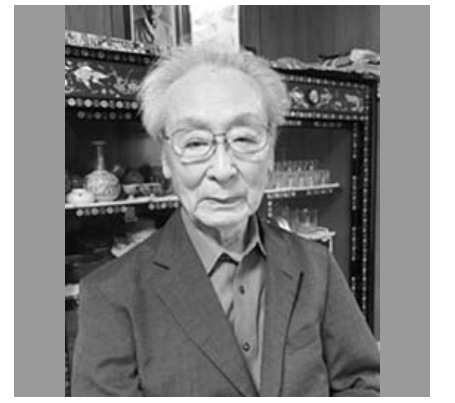
아울러 "한반도의 분단에 종언을 고함으로써 남과 북의 민주적 평화통일 담 세상을 염원하는 제일(在日) 시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욕망을 미학적으로 확장한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수상자 김시종 시인은 1929년 부산에서 태어나 어머니 고향인 제주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뒤 중관립광주사범학교에 진학했다. 제주 4·3항쟁에 참여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제일(在日)의 삶을 살고 있다. 그의 문체특색은 우

리의 삶을 이루는 유무형의 제도과 대상들, 특히 지배 언어와 피지배 언어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의 문제로 확장된다.

김시종의 첫 시집 '지평선(1955)'은 재일조선인 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시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에세이집 '재일의 틈새에서(1986)'는 제40회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본상, 시집 '원야의 시(1991)'는 제25회 오구마히데오상 특별상을 받았다. 시집 '잃어버린 계절(2010)'은 제41회 다카미준상을, 자전(自傳) '조선과 일본에 살다(2015)'는 제42회 오사카기지로 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일본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시집 '광주시편(1983)'도 발표했다. 5·1



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압살당한 '자유광주'를 조금씩이라도 토해내는 것이 일본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권이요"고 토로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20~22일 개최되는 제4회 아시아문학 페스티벌 개막행사에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제19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 대제전 성료 명인부 대상 정선영·일반부 대상 윤예원

(사) 남도 가야금병창진흥회(대표이사 문명자)는 지난 7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19회 대한민국 가야금병창 대제전을 성료했다.

'대한민국 가야금병창 대제전'은 대한민국 가야금병창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된 대회로, 지역민과 학습자들에게 가야금병창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악 축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 명인부 대상(국회의장상)은 정선영(제23호 국가무형문화재 강정열 사사) 씨가 수상했으며, 남도국악사의 가야금 1

대를 부상으로 받았다. 일반부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은 윤예원(2019년 제26회 부산국악대전 고등부 가야금 병창 부문 장원) 씨가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중·고 단체 등 경연은 영상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사) 남도 가야금병창진흥회 측은 "지난 19년 동안 이어져 온 가야금병창대제전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국악관현악 향연... '한 여름 밤의 파노라마'

13일 남도국악원 토요일공연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3일 오후 5시 전야당 무대에서 토요일 '국악이 좋다'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한 여름 밤의 파노라마'를 주제로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여름

휴가 기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국악관현악의 향연을 펼친다.

먼저, 흥겨운 세마치장단 중심의 국악관현악 '남도아리랑'을 시작으로 '사공의 노래', '뱃노래', '떠가가는 배', '경상도 뱃노래'를 연곡으로 들려준다.

이어 이경섭 작곡의 흥과 신명이 넘치는 국악관현악 '멋으로 사는 세상'의 경쾌한 연주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연주될 곡은 2021년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 정기연주회에서 고산 윤선도의 시를 연주한 관현악 어부사시사 중 '달의 춤'과 '여름 노래'다. 이번 무대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12가사 이수자이자 2016년 KBS국악대상

민요상 및 대상을 수상한 소리꾼 김용우가 특별출연해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오혜원과 함께 가곡과 민요를 열창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장악과(061-540-4042)에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 보증을 바로 이 맛!

- | | |
|----------------|------------|
| 한약재, 첨가물 NO! | |
| 홍삼성분 다량 함유 | ▶ 짹짹한 맛 |
|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 |
| 6년근 1등삼 25지 | ▶ 풋내가 없음 |
| 국산 홍삼만 사용 | ▶ 느끼한 맛 없음 |
| 불필요한 고품형 제거 | ▶ 깔끔한 맛 |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동별 매장 모집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고려홍삼.shop